

\*수정일 : 2020.09.17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④  
 21. ① 22. ① 23. ② 24. ③ 25. ③ 26. ⑤ 27. ① 28. ⑤ 29. ④ 30. ③  
 31. ⑤ 32. ② 33. ③ 34. ① 35. ② 36. ③ 37. ③ 38. ① 39. ③ 40. ①  
 41. ⑤ 42. ④ 43. ⑤ 44. ② 45. ①

[1~3] 화법

1.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2문단의 ‘과학 시간에 ~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와 3문단의 ‘이것은 감의 ~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1문단과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제를 먼저 제시한 후 발표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청중의 요청이나 이에 따라 추가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발표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3문단의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뽕은맛을 내는 타닌 성분을 시각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타닌 이외의 성분을 분석한 자료는 보여 주고 있지 않으므로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라는 발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의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의 ‘과학 시간에 ~ 촉각에 해당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뽕은맛을 내는 ~ 텁텁하다고 느

낫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의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로 녹차와 홍차를 언급하고 있다.

3.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해설** : 학생 2의 ‘뽕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와 학생 3의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뽕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은 ‘녹차의 뽕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나 학생 2는 그렇지 않다.

[4~7] 화법, 작문

4.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해설** : (가)에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지도사’에게 질문하는 내용과 ‘지도사’가 이를 바로잡아 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도사’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대화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지도사’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고 있으나,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와 '진행자'의 세 번째 발화 중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도사'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도사'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성찰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가)의 '지도사'의 두 번째 발화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나)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지도사'의 마지막 발화에서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나)의 3문단에서 해당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지도사'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화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1문단에서 그러한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③ (가)의 '지도사'의 세 번째 발화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의 2문단 '내 생각과 달리 ~ 생각했다.'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기존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2문단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7. 성찰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에서 '침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에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②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확인할 수 없다. ③, ④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침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해설 : (나)의 5문단에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해설 : <보기>는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의 화제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A]는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 독자인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에는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글의 제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만 드러나 있다. ④ 글의 도입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A]에는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해설 : (나)의 4문단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것'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의 4문단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2문단에서는 (나)의 5문단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을 근거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나)의 4문단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을 정보 처리 시간 절감과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 본 경험의 여부이다. ⑤ (나)의 4문단에 인포그래픽의 효율성

이 언급되어 있으나,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에 대한 공감 여부가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지 않는 이유이다.

**[11~15] 언어**

**11.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 해설 :** '견디-+-어서'가 [견더서]로 발음될 때에는 'ㅣ + ㅜ → ㅟ(j + 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뛰-+-어'가 [뛰어]로 발음될 때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차-+-아도'가 [차도]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ㅏ'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잡그-+-아'가 [잡가]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ㅡ'가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키우-+-어라'가 [키워라]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13]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의 기능**

**지문 해설 :** 이 글은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가 해당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립성과 관련하여 접사와 어미에는 붙임표가 쓰이고, 조사에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용언이 표제어로 오를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가 표제어가 되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쓰이는 붙임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기원적으로는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를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와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표제어에 쓰인 붙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2. 단어의 이해**

**정답 해설 :** 3문단에서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논둑길'의 표제어는 '논-둑-길'이 아니라 '논둑-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논둑'과 '길'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는 '맨-'이다. 2문단에서 접사에는 붙임표가 쓰여 표제어로 오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는 목적격 조사 '를'이다. 2문단에서 조사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조사가 표제어로 오를 때에는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는 '삽니다'이며, '삽니다'의 어간은 '살-'이다. 2문단에서 용언은 어간에 '-다'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며,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단어의 이해**

**정답 해설 :** 4~6문단에서는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를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생산력이 낮은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와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라는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원이 되는 용언 '잦다'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 '-우(잦- + -우)'가 쓰인 경우이므로 전자에 해당한다. <보기>의 '조차', '차마', '부터'는 각각 '좃다', '참다', '붙다'의 본뜻과 의미가 멀어진 것으로, ㉠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정답 ④**

**14. 품사와 문장 성분**

**정답 해설 :** ㉠에서는 부사 '아주'가 관형사 '옛'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에 따라 관형사나 다른 부사 등도 수식할 수 있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명사 '빵'이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목적격 조사는 '을/를'이다. ③ ㉡에서는 명사 '어른'이 조사와 결합 없이 보어로 쓰였다. ④ ㉠에서는 명사 '장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⑤ ㉠에서는 수 관형사 '세'가 의존 명사 '마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세'는 관형사이며, '셋'이 수사이다.

**15.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 해설 :** '뿌메'는 '뿌- + -움 + 에'로 분석되고 이때의 '-움'은 명사형 전성어미이

다. ‘쓰-’는 ‘쓰다’의 어간이며 ‘쓰다’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말씀’은 ‘말+ㅅ+이’로, ‘흙 배’의 ‘배’는 ‘바+ㅣ’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ㅣ’나 반모음 ‘y’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ㅣ’가 쓰였다. ② 중세 국어 ‘하다’는 현대어 ‘ 많다’에 대응하며, 그 품사는 형용사이다. ③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예시의 각 글자 원편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높은 소리)을 의미한다. ④ ‘히여’와 ‘뺨한키 하고저’는 각각 현대어 ‘하여금’과 ‘편하게 하고자’와 대응한다. 모두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16~19] 문학**

**[16-19] 현대 소설 - 이기영, ‘고향’**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경향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1930년대 농촌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작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유랑민이 크게 급증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당시 현실의 모순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향한 ‘김희준’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자발적·주체적 공동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 의식의 성장

**1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에서는 안승학의 가난했던 형편 및 그의 가족사, ‘이 동리’로 가족이 옮겨오게 된 이유 등과 같은 인물의 내력을 간추려 설명하고 있다. 즉 서술 대상인 안승학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그에 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서술 대상인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인물에 대한 독백적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안승학이 ‘이 동리’로 옮겨 와 살게 된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나, 안승학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안승학의 부친과 모친의 죽음, 그리고 ‘이 동리’로 옮겨 살게 된 내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을 뿐, 병렬적 서술을

통해 안승학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안승학의 내력을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안승학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B]에서 안승학은 엽서를 작성해서 우편통에 넣고, 그 엽서가 자신의 집으로 배달되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승학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이웃 사람들은 새로 생긴 전봇대나 우편소가 무엇인지 몰라 두려워 하면서 전봇대와 우편소 안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우편소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안승학은 엽서를 작성해서 우편통에 넣고 이 엽서를 자신의 집에서 받아 본다. 그러나 우편소를 처음 접해 잘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엽서가 배달된 것에 대해 신기해하며 놀라고 있다. ④ 안승학이 우편통에 넣은 엽서가 그의 집에 배달되어 오는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참, 조촐속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인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이웃 사람들은 전봇대에서 노상 나는 ‘잉-’ 소리와 우편소 안에서 무시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가 모두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전봇대나 우편소와 같은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농촌에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희준은 안승학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요구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에 대해 희준이 안승학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남의 집을 찾아왔으면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안승학의 말에 대해 김선달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 다 대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응수하며 안승학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이냐고 묻는 희준에게 안승학은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라고 말하며 ‘요구 조건’에 대

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안승학은 ‘그따위 이야기’, ‘어림없지’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요구 조건’의 수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담뱃대를 밀어 던지면서 자신을 방문한 다섯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반응에 대해 다섯 사람은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겠냐며 안승학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요구 조건’ 수락을 둘러싼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과 이로 인한 긴장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⑤ 안승학은 희준을 포함한 다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방문하자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김선달에게 분해하면서도 그에게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그가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다섯 사람이 안승학에게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묻는 것은 안승학이 ‘요구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사음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승학은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다섯 사람에게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안승학이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승학의 반응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섯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별다른 지체도 없이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안승학은 마을 사람들의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음의 자리에 오르며 지위가 변하게 된다. 사음이라는 지위가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안승학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위가 달라진 인물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던 것과 달리, 안승학은 사람들에게 목판차를 탔던 경험을 말하고 우편소 이용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근대 문물의 유입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는 ‘근본’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변모시켜가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안승학은 사람들에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에 갔던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 지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근대 문물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안승학은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인지를 묻는 다섯 사람에게 서로의 물질상 손해만 커질 것이라며, 나락을 벨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다섯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작농의 이익보다는 사음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안승학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

는 인물형을 확인할 수 있다.

### [20~25] 독서

#### [20~25] 인문 - (가) ‘예술 정의에 대한 미학 이론의 전개’ / (나)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에서 출발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8세기 말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한 후 모방론은 쇠퇴하고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콜링우드의 표현론과 벨의 형식론이 제기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기존의 미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과 디키의 제도론이 등장한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제]** 모방론 이후 예술을 정의하고자 한 다양한 미학 이론들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은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대두된다. 형식주의 비평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주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단 방법

#### 2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의 1문단에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예술의 정의 문제를 다룬 모방론이 낭만주의 사조의 등장으로 많이 쇠퇴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2문단에서 그 새로운 이론으로 표현론과 형식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과 일반적인 변기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대두된 두 가지 대응 이론으로 3문단에서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을,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나누고 있다.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에 대해 소개하고, 3문단에서는 맥락주의가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다양한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이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화제에 대한 이론이나 비평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각의 이론이나 비평 방법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화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 또는 비평 방법을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2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2문단에서 ‘형식론’은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즉 ‘의미 있는 형식’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의 2문단에서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의미 있는 형식’을 식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론이 아니라 표현론의 관점이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형식론이 아니라 표현론이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해설 :** (가)의 1문단에서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하였으며,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뒤샹의 작품 ‘샘’이 변기 그 자

체이기 때문에 모방론자의 입장에서는 ‘샘’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서 낭만주의 사조는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하면서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낭만주의 예술가의 입장에서 모방론자를 대상의 재현만 강조하고 예술가의 감정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표현론은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론자는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뒤샹은 자신의 작품인 ‘샘’ 이외의 다른 변기들도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웨이츠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라는 견해를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가 제시한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라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로 볼 수 있다.

**2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가)의 4문단에서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리움’이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쳐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가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한 것은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 즉 ‘그리움’이라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리움’에 그려진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주목한 것이므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한 착안점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리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면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보기>의 팸플릿의 설명을 고려할 때 「그리움」에 그려진 아버지의 낡은 신발이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울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 작품 정보 요약 내용에서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프랑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다.

#### 2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② (나)의 2문단에서 맥락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1937년’이라는 해에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품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나)의 4문단에서 인상주의 비평은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갈구하는’이라는 서술은 비평가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5.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 이론(理論)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를 뜻하며, 예문의 이론(異論)은 ‘다른 이론(理論)이나 의견.’을 뜻한다. 따라서 이론(異論)은 이론(理論)과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와 예문의 ‘전제(前提)’는 모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② ㉢와 예문의 ‘시기(時期)’는 모두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을 뜻하는 단어이다. ④ ㉣와 예문의 ‘근거(根據)’는 모두 ‘어떤 일이나 의견,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을 뜻하는 단어이다. ⑤ ㉤와 예문의 ‘시각(視角)’은 모두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뜻하는 단어이다.

#### [26~30] 독서

##### [26~30] 사회,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

**지문해설 :** 이 글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는데,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국회보다 이를 다루는 데에 더 적합한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특정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제정되는 위임명령은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지방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하며,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주제] 행정입법의 유형과 그 특징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에 비해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1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이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반면,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의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에 행정입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진술은 조례에 해당하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이 모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3문단에 제시된 행정규칙 중 고시, 예규 등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이 모두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 조례의 경우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이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는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되는 경우 제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었다는 것은 '위임받은 범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위임명령은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위임명령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에서 말하는 제한 위반으로 인한 효력 상실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은 행정입법의 제정 취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여 제정될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8.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과 위임명령은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임 근거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제정 주체가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위임명령이나 조례는 모두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이므로 ㉣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제3조는 법률이고 ㉣의 제5조는 법률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다.



㉔의 제5조는 ㉔를 근거로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해 제정된 것이므로 ㉔의 제3조를 통해 위임 근거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위임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㉔ ㉔의 제5조는 ㉔의 제3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는 것이지 ㉔의 제16조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㉔ ㉔는 위임명령이므로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례인 ㉔도 마찬가지이다. ㉔ 대통령령인 ㉔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인 ㉔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㉔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㉔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다고 진술해야 한다.

### 3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예측하다'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를 '헤아리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실현하다'는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룬다.'의 의미이므로 '나타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㉒ '반영하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의 의미이므로 '드러내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를 '마주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의 의미이므로 '달라진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1~33] 문학

#### [31~33]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심청전'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판소리게 소설이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심과 효행을 주로 담은 효행 설화 등을 바탕으로 주인공 '심청'의 출생과 성장, 죽음과 부활, 부녀의 상봉과 심봉사의 개안(開眼)이 사건의 중심을 이루며 유교 이념인 '효(孝)'를 부각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아버지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제물로 팔려 가게 된 장면과 심청이 황후가 되어 심봉사와 상봉하고 심봉사가 반가움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다.

**[주제]** 심청의 효심과 효행

### 3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㉑는 심청의 내적 갈등을 짐작하게 하나, ㉑의 전후 상황에서 심청과 심봉사의 외적 갈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봉사가 ㉑를 '반겨 들고' 고마워하며 '그 일 매우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심청과의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㉑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㉕**

**[오답 피하기]** ㉑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를 통해 심청이 ㉑으로 감추려고 한 것은 아버지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시주할 공양미 삼백 석을 장만하기 위해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게 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㉒ 심청이 ㉑을 결심할 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으로부터 ㉑이 심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㉓ ㉑을 전후하여 진행된 대화에서 ㉑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장승상댁 노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인물에 대해 심봉사는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로부터 장승상댁 노부인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㉔ 심봉사는 ㉑을 들고 반가움과 고마움의 반응을 보이며 '언제 가느냐?'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심봉사는 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 해설** : 황후는 심봉사에게 '처자 있으신가?'라며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에 심봉사는 '상처'한 일과 자신의 딸이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황후는 심봉사가 '정녕 부친인 줄' 알게 되므로 '가족에 관한 질문'이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㉒**

**[오답 피하기]** ㉑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황후는 '반기'지만 심봉사는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고 있다. 이렇듯 '심봉사'가 별전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㉓ 심봉사는 '아무 연분에 상처하'었다고 말했을 뿐, '상처'의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㉔ 심봉사는 '신도 모르게' 딸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봉사가 심청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㉕ 황후는 심봉사가 '말씀을 마치자'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 '제가 그 심청'이라고 밝혔다. 즉 황후는 심봉사의 발언이 끝난 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힌 것이다.

### 3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어찌 아버님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는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여기에서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심청이 눈먼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엿질러진 물이요, 쓰아 놓은 화살이다.’라고 ‘다시금 생각’하는 것에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며 ‘내가 살았을 제’ 아버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죽은 후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겪게 될 어려움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심봉사의 개안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뒤늦게 실현되기 때문에 발화 장면에서 심봉사는 아직 맹인인 처지이다. 그러므로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개안이 뒤늦게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4~37] 독서

#### [34~37] 과학 -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작용기제’

**지문 해설** : 이 글은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작용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포자의 파괴 여부에 따라 멸균제와 감염방지제로 분류되며,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소독제이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체의 세포막 또는 피막의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한편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므로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주제]** 방역용 화학 물질인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항미생물 화학제의 병원

### 체에 대한 작용기제

### 34.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4문단에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병원성 세균이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1문단에서 세균은 세포막과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점, 4문단에서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지질을 용해시키고 병원성 세균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세균의 표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포막과 그것을 감싸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균의 표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는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해 방역 효과가 있다는 점, 하이포염소산 소독 등의 산화제는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 하이포염소산 소독 등의 산화제가 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 3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하이포염소산 소독이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인 캡시드를 손상시킨다는 점을 4문단에서,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을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포염소산 소독은 병원체의 내부와 표면 모두에서 단백질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원체 내부가 아닌 표면의 단백질만 손상시킨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진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핵산의 염기에 결합

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고 하였다.

### 36.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을 통해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는 반면, ㉡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따라서 ㉠과 달리 ㉡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을 뿐 진균의 포자는 사멸시킬 수 없다. ② ㉢은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항미생물 화학제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고 ㉡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뿐 아니라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도 사멸시킬 수 있다. ⑤ 사람의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 물론 ㉢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알코올 화합물(A)은 지질을 용해시켜 바이러스의 지질 피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켜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인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고 했으므로, C는 B에 비해 지질을 손상시키는 효과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모두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B에 비해 더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C가 B에 비해 더 낮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B는 A에 비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하므로,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② C는 A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므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A에 비해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A와 C

가 동일하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④ D는 A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고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약하다. 따라서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⑤ D는 B에 비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므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B에 비해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B와 D의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동일하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 [38~42] 문항

**[38~42] 갈래 복합 - (가)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이덕무, '우언(迂言)'**

**(가) 지문 해설** : (가)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이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의 경험, 내면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거나,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거나,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에 따라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주제]**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나) 지문 해설** : (나)는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롭게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아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다) 지문 해설** : (다)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덕무의 저술을 모아 엮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실린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삶의 방식을 나누고, 자신을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신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시세나 사정에 밝지 못한 말, 즉 '우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시정에 살지만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글쓴이가 우회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

### 38.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제1수>의 '산수 간 바회 아래 뒤풀'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일상의 공간이다. <제6수>의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에게 '님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제2수>의 '보리밥 풋노물'은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제3수>의 '진' 역시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이 부를 줄이 이시라'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바회 굿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해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5수>에서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④ <제3수>에서의 '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은자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3수>에는 '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제3수>에서 화자는 '뫼'를 바라보는 감흥이 그리운 임이 오는 반가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에서는 '산수 간 바회 아래 뒤풀'을 짓고 거처하고 있는 화자를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이 대비되면서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바회 굿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화자는 속세의 일을 '녀나쁜 일'이라고 말하며 '녀나쁜 일'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4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나'는 자신이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며, 이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가치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는 산림에 사느냐, 시정에 사느냐와 명리에 마음을 두느냐, 은거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③ '나'는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인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는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큰 즐거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⑤ '나'는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든 작은 즐거움이든 '즐거움'에,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든 작은 부끄러움이든 '부끄러움'에 대응시키고 있다.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고 있는 것이다.

### 41.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에서 화자는 자신을 '하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자연 속에서 거처하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말이 '물정을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른,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한 것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서 글쓴이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 42.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해설 : (나)의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고대 중국의 선인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에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한편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에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는 무정물인 '뢰'를 반갑고 좋은 대상으로 여기며 그것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산림'은 큰 부끄러움을 누릴 수도, 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산림'을 자연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을 나누고 그중에서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본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짓고 있다.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는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김수영, '사령' / (나)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가) 지문 해설 :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어 있다고 토로하며,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유가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유를 말하는 벗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주제]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나) 지문 해설 : (나)는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어붙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과 연결하여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한강물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을 비웃으며, 말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 강물 위에 붙들려 늘어선 배들을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나뭇구는 몸짓과 같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주면서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 4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등의 반복을 통해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이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벗'을 '그대'라는 호칭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벗'에 대한 화자의 경의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시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등에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인 '황혼'이나 '돌벽 아래 잡초'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은 한강물이 얼어 '강물에 붙들'렸기 때문이므로 배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배가 움직일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화자는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면서 그에 따른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붙들린 배'는 시상 전개에 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보며 '비웃'는다고 했으므로 정렬된 배의 모습에 대한 냉소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 이유는 '한강물'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꽝꽝'의 사전적 의미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임을 고려할 때, '꽝꽝'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강물이 얼어붙은 상황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조하며 성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에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애 활성화할 수 없다는 화자의 성찰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비웃는 모습과 텅구는 장면을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화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고요함'과 (나)에서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이 '활자'로 한정된 것을 의사소통의 장애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어, (나)에서 '날아가지 못하는 말'을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했다고 하였으므로 이 내용과 연관 지어, (가)에서 '황혼', '돌벽' 아래 잡초' 등과 같은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불박한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의 언어 상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에서 '언 강물'로 인해 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감상한 것 역시 적절하다.